

불자 세상보기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글날이 돌아왔다. 다시 공휴일이다. 쉬는 날이라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21세기 오늘, 한글날은 불자인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다. 평균의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가 단 하루 만에 문자를 터득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랜 동안 문자를 지배층이 독점해 왔으며, 문자로 된 지식과 정보는 지배와 권력의 바탕이었다. 피지배층이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은 그 문자로 된 정보와 지식을 지배층과 공유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문맹률이 1%이었던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나라에선 대중이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지배층과 동등한 지식과 정보, 그래서 파생된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다. 정

21세기 오늘, 한글날의 의미

권이 다시 독재로 회귀하고 있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노력한다면 한국의 대중처럼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가면서 세종대왕의 뜻이기도 하다.

한글은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소젖', '우유(牛乳)', '밀크(milk)'가 같은 낱말일까.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을 사용하더라도 이미지와 의미, 표상하는 세계가 달라진다. 사피어-워프의 가설대로 "언어는 세계의 형식을 규정한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몸은 한국인이지만 아직 한문을 빌려 중국인처럼 사유하였을 것이다. 한글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한국인으로 사유하고 표상하고 실천하게 되었다.

한글은 지금 현재 가장 훌륭한 문자이자 먼 미래의 문자이다. 지금 서양은 말과 문자가 일치하는 음소문자인 알파벳을 쓰고 있는데, 이를 만드는데 5,000년이 걸렸다. 언어학자 겔브(I.J.Gelb)에 의하면, 슈메르의 그림글자(기원전

3,100년)가 셈말의 소리마디 글자(기원전 1,700년)로 발전하는데 1,400년이 걸렸다. 이 셈말의 소리마디글자가 페니키아 문자 등을 거쳐 그리스문자(기원전 900년)의 음소글자로 바뀌는데 800년이 걸렸다.

영국의 언어학자 샘프슨(Geoeffrey Sampson)은 음소문자를 넘어선 다음 세대의 문자가 발음하는 발음기관과 문자가 일치하는 소리바탕글자(feature system, 音韻質文字)인데,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영미권에서는 먼 미래에서나 쓸 소리바탕글자를 한국인은 이미 한글로 쓰고 있다며 경악하였다. 그의 지적처럼, 어금니 모양을 띤 기역자의 음이 어금니에서 나고, 치아의 모양을 띤 시옷자의 음이 치아에서 나오는 문자는 이 세상에 한글 말고는 없다. 마릴린 먼로처럼 서양의 유명인사가 자기 이름 철자를 자주 틀려서 구설수에 올랐지만, 우리도 그럴 염려가 없다.

한글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24개 글자를 조합하여 1만 2,768개의 음절을 만들어 온갖 삼라만상이 내는 소리를 그에 가깝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자이다. 게다가 세 개의 문자로 모든 모음을 표기할 수 있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에 따라 아래(·)는 하늘, 'ㅡ'는 땅, 'ㅣ'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땅 위에 하늘이 있으면 'ㄴ', 사람 옆에 하늘이 있으면 'ㅈ' 식으로 모음이 구성되기에, 'ㅈ, ㅊ, ㅌ' 세 글자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인보다 빠르고 쉽게 문장과 텍스트를 컴퓨터 키판이나 스마트폰 문자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랴. 북에 겨워서인가. 경전과 의례문은 아직 한문본 일색이고, 지식인과 대중 할 것 없이 영어 낱말을 섞어 사용한다. 거리의 간판을 보면 뉴욕의 뒷골목 같다. 진주 목걸이를 댈 때가 차고 다니면서 진흙탕에서 뽕굴고 있는 형상이다. 그 진주 목걸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이 가을날, 한글로 경전을 음송하며 단풍이 물든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그치지 없이 투명하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국악이다.

社說

한글 사랑, 불교가 나서야 할 이유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서기 1446년 3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세상에 반포함을 기리는 날이다. 해방 이후 1949년 대통령령으로 법정 공휴일로 제정된 이래 꾸준히 기념해오다가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올해 한글날 더욱 뜻 깊다. 고 박 22년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글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이다. 한글 창제로 우리 국민은 그간 중국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던 불편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적 발전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한글이 신미 대사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생을 신미 대사의 연구에 바친 속리산 복천암 월성 스님은 신미 스님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증거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

후 유서(儒書)가 아닌 불서(佛書)를 언해했다는 점 △세종이 신미 스님의 주석적인 복천암을 중수했다는 점 △〈영산김씨세보〉에 신미 스님이 집현전 학사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 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미 대사와 세종대왕의 민초를 위하는 마음이 담긴 한글에 대한 파괴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남용되는 은어부터 축약어까지 더 이상 한글이 아니게 되는 상황까지 번지고 있다.

창제의 주역인 신미 대사를 정작 불교계에서 전혀 조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그나마 조계종이 한글날을 맞아 전통문화 화합골인 '석보체'를 발표하고 '불교와 한글'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불교가 나서서 한글 사랑에 앞장 서야 하는 것은 신미 대사가 남긴 유산에 대한 실천이며, 나아가 뒤를 이어 한글을 배울 후손들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유영익 국편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해야

한 국가의 역사는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 및 삶의 철학, 종교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역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다. 특히 미래를 짚어줄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 앞으로 치러질 대학입시에서 역사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중대성을 무시한 채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벌어져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정 종교 편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10월 1일 취임한 것이다.

유 교수의 종교 편향은 그간 각종 저서와 기고문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기독교 국가건설을 표명할 정도로 친기독교적 성향을 지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면서 기독교 장려 정책을 칭송해 왔다. 실제로 유 교수는 각종 기고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형해(形骸)화시키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독실한 신자의 모범이라고까지 극찬했다.

이승만 정부의 기독교 편향 정책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가치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잘못된 종교관과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만일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 반반년 역사를 관장하는 곳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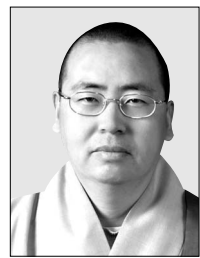
편향된 종교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는 유영익 교수의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발언대

유진룡 문제부 장관
부석사 불상 반환 발언

일본에 반출됐다가 2012년 절도법들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부석사 관음보살상을 두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월 27일 일본 문부과학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반환 금지 및 현지분처의 목소리를 내온 불교계와 서산지역에서는 유 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불교 각계의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지혜롭지 못한 유 장관의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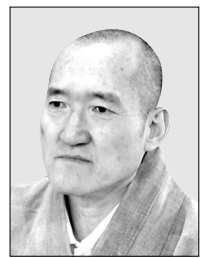


원우스님
부석사 관세음보살상
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

최근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일본 반환' 발언을 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언은 장관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점유 우리 문화재는 7만 5천점에 이르고 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문화재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조차도 관음상이 화상 파손 흔적 등으로 봐서는 약탈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대마도 관음사 역시 소장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 애초 일본의 약탈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재 환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관음상 역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이 분명하다.

“절도품은 원칙 준수가 답”



범응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에 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불상이 한국에 들어온 과정을 보면 절도를 통해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

부석사 불상은 소중한 성보지만 그만큼 소중하기에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지만 일본 반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일본 반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도난으로 일본에서 들어온 것을 일본에 반환하고 이전 일본으로의 반출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본에 요구해 환수받는 것이 옳다. 설령 우리가 부석사 불상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국제규약을 지키고 기본원칙을 지키는데 노력했음을 세계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과 양심에 입각한 인식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자신 또한 일관되게 사태를 진실과 양심에 입각해 바라봐야 한다. 일본이라는 특수성에 휘말려 가면 안된다.

일본 노림수에 휘말려서야



혜문스님
문화재단지리찾기
사무총장

법적국가인 한국에서 도둑질당한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 상이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 불상의 경우 원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카이진사에서 온 불상과 달리 부석사 불상은 현재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번 사태는 일본 언론 등에서 전략적으로 부석사 불상 반환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반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적인 수사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적인 노림수에 한국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상은 회담 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론에 바로 알렸다. 국제적인 반환과정을 보면 재판 등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반환하는 사례가 없지만 일본 측은 한국에서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턱대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화의 흐름에서 정치적으로 불상 반환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일본측의 노림수에 파악하고 국민 모두, 특히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팀	www.hyunbulnews.com
		쇼핑몰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우늪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 (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천 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